

‘의료진→환자 전파’ 광주·전남 병원감염 경로...각별한 주의

광주기독병원·전남대학교병원 등서 잇단 집단감염
의료진·직원 등 모임 자제 호소 뿐...제재방법 없어

최근 광주와 전남지역 중심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의료진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환자까지 감염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8면〉

21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남 오후 광주기독병원에서 간호조무사(광주876번) 1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이후 전수검사를 통해 입원 환자 3명과 동료 의료진 1명이 추가 감염됐다.

이로써 이 병원에서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총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광주기독병원 서5병동은 현재 동일집단 격리(코호트) 조치됐으며

입원환자 26명, 의료진·직원 50명 등 총 76명이 자가격리됐다.

병원 의료진과 종사자 등 840여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22일까지 실시돼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 있다.

전남대학교병원은 지난 13일 의료진 2명(821-822번)이 감염된데 이어 입원환자까지 확진돼 또 일부병동 동일집단 격리에 들어갔다.

전남대병원은 지난달 13일에도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입주업체 직원 등 100여명이 남계 코로나19에 감염돼 응급실과 수술, 외래진료까지 모두 중단된 이후 이달 초 모두 해제돼 안정세를 보였지만 또 의료진 감염자가 나왔다.

전남대병원 안영근 신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캠페인 까지 하며 집단감염에 대해 사과했다.

화순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직원(전남479번)이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날까지 환자 10명, 직원 4명 등 총 14명이 감염돼 동일집단 격리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확진자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응급실 운영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광주와 전남도 방역당국은 최근 병원 감염 사례가 의료진과 직원에 의한 환자 전파로 확인되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조치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요양시설의 경우 2주에 한번씩 종사자와 입원환자까지 선제적 검사 진행하고 있지만 종합병원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자체적으로 자체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광주 남구 광주기독병원 서5병동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의료진 등 종사자 전수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진과 직원 등의 감염은 외부 모임 참석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병원 자체적으로 모임 자제 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화순군수 “코로나19 최대 위기...군민 전수검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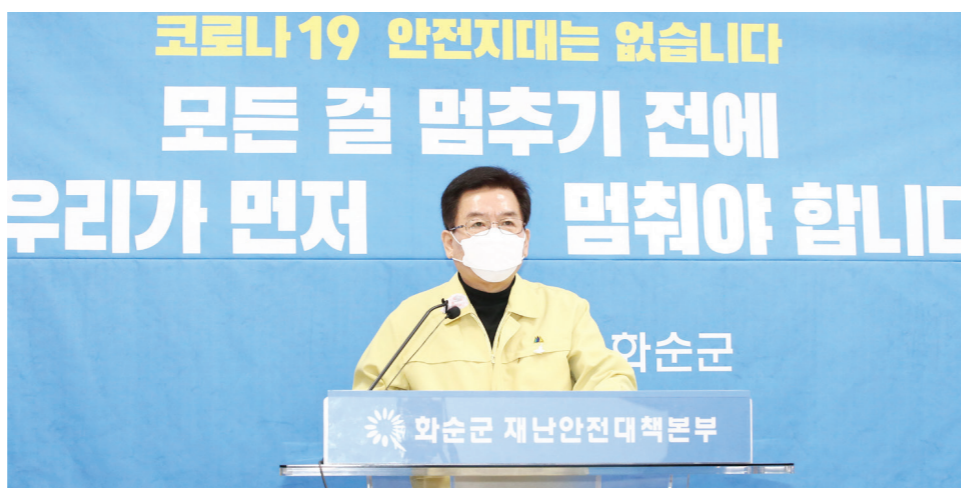
구충곤 군수 호소문 '적극 동참' 당부

구충곤 전남 화순군수는 21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군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 군수는 이날 대군민 호소문을 통해 “전국 1일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 발생하고 화순에서도 12월들어 23명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달에 발생한 확진자 중 65%는 무증상으로, 확진자 본인도 모르는 새 ‘조용한 전파’를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군수는 “특히 무증상 확진자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기 위해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익명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선제 진단검사에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 군수는 “지금까지 화순군은 여러 번 고비가 있었지만 군민들의 협조로 잘 극복할 수 있었다”며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연말연시 모임과 티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구충곤 화순군수는 21일 대군민 호소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한 전수조사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화순군 제공)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수칙, 시설별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화순군에서는 이날까지 총 3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12월 들어서만 그 절반이 넘는 23명이 추가됐다.

지난 12일 한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발

생한 이후 연일 확산되고 있으며 지난 20일 하루에만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화순군은 지난 13일부터 해당 요양병원을 동일집단 격리 조치하고 격리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화순=박순철기자

농림식품부 올해의 신지식농업인 무안 김덕형·영광 박민호씨 선정

김덕형씨 기능성 양파품종 개발
박민호씨 ‘오매향’ 애플망고 출시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올해의 신지식농업인 7명 중 전남에서 무안 김덕형(58)씨와 영광 박민호(32)씨가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신지식농업인은 창의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 선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선발하며, 시·군이 추천한 농업인 중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전남 신지식농업인 2명은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채소, 과수 분야에서 새로운 영농기술과 독창적인 제품을 개발해 농업·농촌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덕형씨는 무안군 대표 농산물인 양파의 새로운 재배기술 도입과 보급에 노력했다. 특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신지식농업인 선정된 무안 김덕형(58-왼쪽)씨와 영광 박민호(32)씨.

히 스테비아 추출물로 천연발효 액비를 활용한 스테비아농법을 이용, 기능성 양파 품종을 개발했다.

박민호씨는 스마트팜을 활용해 국내 재배환경에 적합한 애플망고 품종 개발과 재배기술을 도입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물 보급·확산에 힘쓰고 있다. 아열대 과수브랜드 ‘오매향’ 애플망고를 출시해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는 등 지역농업인 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김정환기자

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 결사반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전투기 소음에서 지켜주세요

황토와 갯벌, 생명의 땅 무안에 군 공항 이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안군